국내 최대 알루미늄 생산단지 조성

동양강철, 충청남도와 투자유치 MOU … 2017년까지 3200억원 투자

충남 논산에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단지가 조성된다.

충청남도는 6월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알루미늄제품 생산기업 동양강철그룹과 투자유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협약에 따라 동양강철그룹은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26만4000㎡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2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알루미늄 부품·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.

단지에는 동양강철은 물론 고강알루미늄, KPTU, 알루텍 등 3개 계열사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.

앞서 동양강철 계열사인 현대알루미늄은 2009년 9월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양지제2농공단지 13만3000㎡에 2014년까지 210억원을 투입해 알루미늄제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논산이 동양강철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기지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.

박도봉 동양강철그룹 회장은 "논산에 공장을 잇달아 건설하는 것을 계기로 회사를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제품 생산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4>